2020학년도 수능 22일부터 원서접수

광주시교육청, 내달 6일까지 접수 마감

영역 확인 등 주의 당부…11월14일 시험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작성·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나 타 시·도 졸업생,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광주시교육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직업 탐구 영역은 선택 제한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신분증이다.

타시·도 지원자는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졸업증명서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돼야 하며 2018년 8월22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 직접접수가 원칙이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14일에 실시되며, 성적 통지일은 12월4일이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원서 접수처에 상주 직원을 다수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교육부·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공동 주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성료'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가 14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학교+ 이야기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전남·광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교·대학·사회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극단 상연, 전문가 강연, 학부모와 토크 콘서트, 질의 응답 등의 방식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강연과 별도로 학부모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5개의 '학부모(학생) 상담 부스'를 운영해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도왔다.

강사로 나선 (전)로열더치 셸 매니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김수영 작가는 "아이들의 간절한 꿈을, 우리 부모님들이 파괴자가 아닌, 응원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성취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역설했다.

연극 '어느 날 미래에서' 공연을 통해서는 오로지 입시에만 몰두하는 엄마와 갈등하는 딸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자녀의 꿈과 미래에 대한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내 자녀의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도교육청 송용석 교육국장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연계된 학생중심수업, 관찰·평가로 학생의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학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적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학생중심 수업혁신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개최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후 첫 번째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진도교육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도교육참여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열띤 토론 끝에 처리하였으며, 특히 참여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진도참여위원은 이날 진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 진도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과 학교지원센터 추진 경과, 진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증설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민의식 교육장은진도아이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진도의 독창적인 사상과 문화가 교육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도교육참여위원회가 중추적인역할을 해달라고당부했다.

지난 5월 구성된 진도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 방향, 군민 참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교육경비 사업, 지자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최준호 위원장은 "모두가 보배로운 혁신진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위원님들이 추후 구성되는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순천대 2019 하계 중국문화 체험 캠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이틀간 순천 관내 초·중등 및 순천대 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중국문화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19년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대학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순천대 정동보 학생처장(중어중문학과 교수)이 운영단장으로서 프로그램 운영기획, 교육관리, 운영지도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교사 2명, 중국 원어민 교사 5명, 관리교사 3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개 학급으로 진행된 캠프는 △회화수업 △문화수업 △발표회 △퀴즈 등 형식을 도입해 주입식 어학수업의 틀을 탈피한 서예, 중국 전통놀이, 천등 만들기, 종이 용 만들기, 물건 구매 활동 등과 접목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정동보 운영단장은 "이번 캠프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중국의 문화나 배경 등을 먼저 이해시켜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고, 국립대학과 지역교육청 간 교류를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관학 협력이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안전담당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해양프로그램 통한 안전한 물놀이 체험 업무능력 향상

광주학생해양수련원(원장 장기석)이 13~14일 '2019년 안전업무 담당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주관, 광주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개설,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연수 실시를 통한 3개 기관 협업으로 이루어진 연수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주로 학생수련과정을 운영하지만 올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중·고 안전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원 3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연수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특화된 해양수련프로그램을 여름철 수상안전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수상안전 사고의 유형과 대책, 익수자 구조 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을 이론과 체험형 연수로 진행됐다.

특히 발포해수욕장에 설치된 바지선 교육장을 활용하여 드로우백 던지기, 레스큐바를 이용한 인명구조, 생존수영 등 실습교육으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익수자에게 적절한 인공호흡 및 응급처치 방법으로 이루어져 위기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장기석 원장은 "우리 원의 시설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업무 담당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안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학생수련활동 범위를 넘어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물론 수상안전교육 직무연수까지 가능한 수련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무안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관계자 안전교육

운전원 15명 대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14일 여름방학 기간 중 일선 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15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사시사철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한 운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리로서 현장에서 벗어나 구성원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통해 공직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준헌 행정지원과장은 안전운행에 힘써온 운전원들을 격려하고, 법규준수 및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관내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교육행정 8,9급과 조리직렬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